

보성강댐 물 주암댐으로 보내 광주·전남 식수난 '숨통' 트다

가뭄 해소까지 수력발전 중단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기로
손실보전금은 한수원이 지급



보성군 검백면 용산리 보성강댐의 발전용수가 광주·전남의 극심한 가뭄상황이 해소 될 때까지 주암댐으로 보내져 생활·공업용수로 쓰이게 된다. <환경부 제공>

광주·전남지역의 기록적인 겨울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 수력발전용 댐인 보성강댐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하게 된다.

현 추세로 가뭄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한급수는 물론 내년 홍수기 전 광주·전남의 생활·공업용수를 대는 댐들이 모두 말라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성강댐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극심한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수원인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을 중단하고, 보성강댐 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부터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부를 주암댐으로 흘려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가뭄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발전을 중단하고 주암댐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보성강댐은 전력 생산을 위해 특화된 방면으로 최근 10년간 상반기(1~6월)에만 4400만톤의 물을 흘려보냈다. 이 물은 수력발전을 위해 흘려보냈고 일부는 특관만 지역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뭄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방류 방향을 보성강 부류 방면으로 변경해 주암댐으로 수문을 방류하기로 한 것이다. 특관만 농업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만을 보장하고 나머지 용량은 모두 주암댐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 물은 주암 본댐에서 광주시 등 6개 지자체로 보내져 생활·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주암 조절지대에서는 여수·광양 등 5개 지자체에 생활·공업용수로 공급된다.

보성강댐의 물은 126.51m(EL) 이상 수위가 될 때마다 주암댐에 보내지게 된다. 보성강댐의 정상

적인 댐 운영조건에서 올라 갈 수 있는 최대수위는 127.27m(EL)이고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위는 120.45m(EL)이다.

27일 현재 광주·전남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26.4%, 주암댐은 29.3%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흘간 폭설이 내리기 전인 21일의 동북댐 26.9%, 주암댐 29.4%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눈이 녹아 일부 댐에 흘러 들었을 것을 고려해도 사흘이 지난 27일 현재 저수율은 동북댐 26.5%, 주암댐 29.1%에 그쳐 별반 차이가 없다. 주암댐의 경우 저수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면 물 공급 한계선인 '저수위'에 도달해 수질 등 문제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937년에 준공된 보성강댐은 570만㎡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다. 1초에 최대 6.4㎥의 물을 흘려내려 최근 5년간 연 평균 4만 5741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뭄 극복을 위해 모든 발전을 중단하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보성강댐 물을 용수공급에 활용하면 수력발전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 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의 감소

수력 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성강댐 수력발전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27일 현재까지 보성강댐에서 1260만톤의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전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주암댐으로 보내지는 용수량에 따라 손실보전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손실보전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전 단가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수력발전에서 사용하지 못한 물 1t(톤)당 40원 가량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성강댐의 용수가 주암댐으로 보내지면 그래도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가뭄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물사용 절약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北 무인기 침투에 文정부 비판... "드론부대 조기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남 우리축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

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면 문제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남도 교수 유현준 교수 김정운 교수 서은국 교수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3년 3월~2023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년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거꾸로 가는 광주시 출산정책	▶6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당선인 인터뷰	▶18면
도시의 일상, 일상의 건축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시장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수립 후 17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등산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동안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기업들로 성장했으면서도 사업 수익만을 생각해 어등산 개발사업을 외면해 왔습니다.

서진건설그룹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고향인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진행된 공모에는 서진건설그룹 외에 대한민국 내 어느 회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뤄졌던 2차례의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진건설그룹은 당시 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해 4개월 후인 7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 및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했으며, 사업 시행 기관인 광주도시공사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서진건설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루한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대한민국 어느 기업보다도 성실한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모든 정성을 바쳐 내 고향 광주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그런 심경에는 후회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어떻게든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또다시 장시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데다,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 (주)서진건설그룹으로서 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다시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시민께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2.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시는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광주시장님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여러분!

서진건설그룹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 12. 28.